



HCF MAGAZINE



2021 JANUARY & FEBRUARY



WAY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방향을 정하는 일이다. 어떤 곳을 향해 나아갈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다질 것인지 소소하지만 중요한 고민을 하다 보면 오래도록 원했던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동탄센트럴파크



10 INTERVIEW
음악과 즐거움의 관계
DJ SEFO, 싱어송라이터 미지니

16 COLUMN
예술로 연대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재단들

20 TALK
가치 있는 문화 사업
필환경 시대의 축제

24 LIVE
공작 꽃다발을 내미는 손
회화 작가 황정경



30 WALK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먼지
시인 김명철과의 산책

34 FEATURE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충전
색깔을 찾는 문화 데이트

38 TICKET
ROYAL x PARK 2021년 첫 전시
홍승혜 x 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42 SKETCH
화성을 그리는 방법
자연과 음악

44 CHECK
발길 닿는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50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새로운 길 위에서

54 LIST
막다른 길이면 어때요
흔들리듯 춤을 추듯

58 PEOPLE
화성인의 방향

62 CULTURE & ISSUE
화성시문화재단
1·2월 문화소식

68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70 PLACE
배포차

72 REVIEW
편집 후기



The new year stands before us, like a chapter
in a book, waiting to be written.
We can help write that story by setting goals.

새해가 우리 앞에서 있고, 마치 책의 첫 장처럼 쓰이기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목표를 정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갈 수 있다.

- Melody Beattie



화성의 한 조각

평소 즐겨 찾던 공원이 며칠 사이에 알록달록한 동화 속 세상처럼 변하면 어떤 느낌일까? 화성시와 화성시문화재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HUG AND PEACE>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지난가을부터 40여 명의 화성시민이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직접 뜨개질을 했고, 완성된 작품은 동탄센트럴파크에 설치되었다. 시민들은 추워하고 있을 나무에 옷을 만들어줬고, 길 가는 사람들이 언제나 편하게 실 수 있는 빈백 소파를 만들었다. 소소하게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뜨개질을 통해 침체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은 이 프로젝트는 힘들고 지친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THE 담다

INTERVIEW
DJ SEFO,
싱어송라이터 미지니

COLUMN
예술로 연대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재단들

TALK
필환경 시대의
축제

LIVE
회화 작가
항정경

음악과 즐거움의 관계 DJ SEFO, 싱어송라이터 미지니

DJ SEFO와 싱어송라이터 미지니는 직업을 선택할 때 자신이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한 보기 드문 이들이다. 직업을 고르는 기준은 바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일 것. 목적이 확실했고 수단은 무엇이든 상관없었기 때문에 여러 갈래의 길을 고민했다. 그렇게 선택한 음악은 다행히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신나는 일이었다. 고맙게도 타인뿐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만들어주기도 했다. 2020년 10월 말, 그들의 넘치는 에너지가 화성 시민들에게 가닿았다.

글 이다은 사진 강현욱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화분> 독자분들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DJ SEFO(이하 '세') 안녕하세요, DJ SEFO입니다. 디제잉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니(이하 '미') 저는 즐거움을 노래하는 아티스트 미지니입니다.

디제이와 싱어송라이터에게 공연은 빼놓을 수 없는 삶의 활력일 텐데, 요즘 공연하기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미 다행히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뮤지컬에서 여주인공 '초희' 역을 맡아 매일 열심히 연습 중이에요.故 김현식, 유재하, 김광석 선생님의 노래로 채워지는 뮤지컬인데요. 뮤지션 초희가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지쳐 음악을 포기할까 고민하다가 세 분의 가객과 판타지로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는 내용이에요. 대학로에서 12월 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공연하는데, 상황이 안 좋으니 걱정도 되고, 보러 오시라고 말하기도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하니까 적은 수의 관객분들이라도 들려주시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 외에 버스킹은 겨울이라서 거의 끝났고, 방과 후 학교에서 아이들 레슨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세 공연을 못 해서 다른 일에 집중하는 중이에요. 앨범 작업도 하고, 세포 엔터테인먼트 소속사 아티스트들 관리도 하죠. 스튜디오 사업도 확장하고 있어요. 원래 오산과 병점에 스튜디오가 하나씩 있었고, 지금 여기 수원 스튜디오는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덕분에 아주 열심히 육아 중이에요. 아이가 작년 12월에 태어나서 할 일이 많아요(웃음).

화성시문화재단의 '찾아가는 공연장' 팀으로도 활동하고 있죠?

미 네. 찾아가는 공연장은 매년 재단의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팀들이 화성시 전역에서 1년 동안 거리 공연을 하는 것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시민 여러분을 많이 찾아 뵙지 못해서 아쉬워요. **세** 학교에도 가고 호수공원도 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연해요. 올해 한 번 공연하려다가 갑자기 비가 와서 취소되었지만요(웃음).

미 저는 아침 7시에 동탄역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을 위해 공연했어요. 역 내 플랫폼이었는데 다들 바쁘게 지나가느라 청소해 주시는 분들, 관계자분들을 관객 삼아 노래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 풀고 현장에 가서 세팅하고 몸은 고단했지만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10월 말에는 재단 홍보 영상으로 동탄호수공원에서 래퍼 슬리피 씨와 함께 '기분탓'이라는 곡을 공연했다고요.

미 재단에서 DJ SEFO와 래퍼 슬리피 씨와 협업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을 땐, 제가 주로 어쿠스틱 음악을 하다 보니 '디제이랑 나랑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살짝 들더라고요.

세 저는 편곡을 담당했는데, 일단 무슨 노래가 됐든 EDM으로 잘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사실 이번 작업은 편곡이라기보다 매시업에 더 가까워요. '기분탓'에 어울리는 노래를 맞물려서 들었거든요. 매시업 할 때는 두 곡의 코드나 무드가 비슷해야 해요.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과과과과!'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웃음). 셋이 현장에서 처음 만나서 리허설로 호흡을 맞추고 공연을 했어요. 미지니 님도 원곡의 보컬 파트를 너무 잘 소화해 주신 것 같아요.

현장 분위기도 무척 좋아 보이던데, 소감을 들어보고 싶어요.

세 공연 준비하는 과정에도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카메라도 많고 뭔가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 '뭘야, 뭘야.' 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님들이 많이 멈춰서 기다려 주셨어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



DJ SEFO

에 공연에 목말라 있다가 오랜만에 탁 트인 자연에서 공연하니 좋더라고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요.

미 덕분에 오랜만에 살아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날도 춥지 않았고 관객분들도 꽤 많이 함께해 주셨어요. 참, 슬리피 씨는 라디오를 통해 많이 접해서 얼굴이 익숙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살생기시고 키도 크셔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웃음).

오랜만에 근질근질하던 몸이 풀렸을 것 같아요. 세포님은 디제이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요?

세 원래 직업군인이었어요.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죠. 군에서 중사로 있을 때 디제이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전역했어요.

해병대 부사관이라니 특별한 이력이네요.

세 전공은 조선학과예요. 배 설계하는(웃음). 전공과 다른 일을 해도 그동안 배워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도움이 되더라고요.

원래 음악을 좋아한 거예요?

세 그건 아니에요. 다만,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일이 뭐가 있을지 찾아 왔던 것 같아요. 요리를 할까, 목수를 할까, 아니면 용접을 해볼까 고민했어요. 무엇이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10만 명의 관객이 모인 해외 디제이 페스티벌 영상을 보게 됐어요. 디제이가 음악을 트니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거리 공연으로 시작했다고요.

세 옛날에는 클럽도 많이 다녔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우고 술도 잘 안 하다 보니 담배 냄새 배는 게 싫더라고요. 저는 자연을 좋아해요. 그래서 실내보다 야외를 택했고 길거리로 나갔죠. ‘돈 못 벌면 어때? 길에서 공연하다 죽지,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다들 그렇지 않나요?

글쎄요(웃음)…. 쉽지 않은 마음가짐이죠. 우여곡절도 많았을 것 같아요.

세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전역하기 한 달 전에 메르스가 터져서 잡혀 있던 공연들이 다 취소됐어요.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예술가들에게는 공연계 비수기인 1, 2월이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시기가 오니 집에만 있게 되고 멍해지고 미래가 걱정되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유아 체육 강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디제이도 강사도 사이드 잡으로 생각하고 쪽 병행해 보자는 생각으로요. 겨울이 올 때마다 힘들었지만 강사 일을 하니까 좀 나아졌어요. 그러다 2017년에 ‘세포 스튜디오’를 차렸는데 인테리어 사기를 당해서 디제이로 모은 돈을 다 날려 버리고…. 우여곡절이 어마어마하죠(웃음). 무너질 뻔했지만 잘 버틴 것 같아요.

미지니 님 역시 밴드 ‘오유아이’의 보컬을 시작으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어요. 뮤지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궁금해요.

미 제가 충남 아산 인주면 공세리 출신이에요. 앞에는 파밭이 펼쳐져 있고 뒤에 산이 있는 시골이죠. 실용음악을 전공했지만 학교

가 지방에 있어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어요. 한 교수님이 저에게 본인이 운영하시는 학원의 실장 겸 전임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는 게 어떠냐고 제의를 주셔서 졸업하자마자 서울에 올라왔어요. 졸업 공연을 함께 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올라와서 ‘오유아이’를 결성했어요. 주로 클럽에서 공연을 했는데 흥대 클럽이 어려워지면서 하나둘 문을 닫고 저희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더라고요. 모두 고민이 많아지면서 한두 명씩 떠나고, 어쩌다 보니 저만 남게 되었어요. 친한 지인에게 거리 공연에 관련된 국가 지원 사업을 소개받았고, 그렇게 거리 공연을 시작하게 됐죠. 솔로 앨범도 내고요. 지금은 고향 친구들과 ‘햇바라기’라는 어쿠스틱 팀을 만들어서 두 가지를 병행하려고 해요.

음악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미 세포 님과 비슷해요. 즐거움을 주는 것! 저는 어릴 때 꿈이 개그우먼이었어요.

세 어, 저도 중학교 때까진 그랬어요!

미 정말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웃음)…. 그런데 친한 친구가 “너 노래 잘하잖아. 노래 한번 해봐.”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때 모든 축제에 저를 내보냈어요. 옷가지며 뭐며 다 챙겨 주면서요. 귀가 얇아서 그쪽으로 진로를 틀었죠. 개그우먼이 아니라 뮤지션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걸 느끼면서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전공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미지니 님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며 가장 많이 본 이미지가 기타를 들고 거리에 있는 모습이에요. 버스킹을 좋아하고 즐기는 것 같아요.

미 좋아해요. 클럽 안에서 공연을 하면 주로 아는 사람들이 찾아와요. 재미있는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낮죠. 그런데 거리 공연은 불특정 다수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더 많은 사람에게 제가 가진 에너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세포 님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고 있네요.

세 저도 그런 이유로 거리 공연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리 공연 하다 보면 변수가 정말 많아요. 관객분이 갑자기 엠프 선을 끊어 버린다거나 전원을 꼭 빼버린다거나….

미 한번은 취객이 제 기타를 연주해 보겠다고 하셔서 막았더니, 소동을 피워서 경찰을 부른 적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노래 불러!” 하고 소리 지르는 분도 있었죠.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좋아하는 곡 원치 않더라도 제가 다음 주에 연습해서 올게요.” 하고 넘겨요. 사실 다음 주에 공연이 없는데도요(웃음). 그렇게 관객들을 달래는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세 맞아요. 저는 그래서 거리 공연 경험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소속사 아티스트들도 대부분 거리 공연으로 시작한 친구들이에요.

두 분의 시작점이 비슷하네요. 어릴 적 꿈도, 음악을 하게 된 이유도, 거리 공연을 사랑하는 이유도요.

미 그러게요. 신기하네요.

세 그래서 말이 잘 통했나 봐요.

공연을 구상하고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세 저는 공연에 모든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신나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두는 편이에요. 사람들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싶어요. 신나기만 하면 공연한 디제이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나 오늘 어떤 디제이 공연에서 놀았는데 정말 재미있었어.”가 되어야 하는데 “이번 공연 재미있었어.”가 되는 거죠. 제 마음을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공연해요. 관객과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제가 박수를 치면 따라치고, 이리로 뛰라고 하면 이리 뛰고, 춤도 따라 하고, 그런 호흡과 생동감이 좋아요.

미 거리 공연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관객의 연령층이에요. 미리 음악 리스트를 준비해 가는 편인데 막상 현장에 가면 예상과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어린이가 많으면 어린이가 좋아하는 곡으로 리스트를 싹 바꾸고, 중장년층이 많다고 하면 7080 리스트로 바꾸죠. 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곡을 알아야 해서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해요.



싱어송라이터 미지니



이번 호 주제가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걸어오며 '이 길이 맞을까, 다른 길로 가볼까?' 생각한 적도 있을 테지만, 조금 흔들리더라도 결국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미 고등학교 때부터 10년 정도 음악을 했네요. 사실 중간중간 슬럼프도 오고 그만둘까 생각도 했지만 여기까지 오고 버틸 수 있던 힘은 저에 대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나는 절대 그냥 죽지는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컸나 보네요.

미 그러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서울 와서 슬럼프가 너무 심해서 매일 밤 울고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운 상황이 계속됐었어요. 그걸 극복해낸 게 '지난 일에 신경쓰지 않고 다 털어버리자. 정말 힘든 일이 있어도 한 번 울고 잊어버리자.' 하는 생각을 습관화한 덕분이예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생긴 거고요.

후회한 적은 없어요?

미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건 좀더 적극적으로 빨리, 많은 걸 해보지 못한 거예요. 시골에서 24년을 자랐기 때문에 시야가 좁았어요. 음악 하는 동료들, 프로 뮤지션들을 만날 계기도 기회도 적었죠. 서울에 온 지 6년 정도 된 지금은 시야도, 활동 폭도 조금씩 넓어지고 있어요. 대학교 때 더 빨리 시작하고, 회사도 적극적으로 찾

아보고, 써놓은 곡으로 망설이지 말고 앨범도 낼걸,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남들보다 늦어도 천천히 가다 보면 같은 곳에서 만나지 않을까요? 늦게 출발한 만큼 체력이 남아 있으니까 꾸준히 가면 되죠. 언젠가는 목표 지점에 도달할 테니까요.

세포님은 과거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세 사기 당하지 말자? 농담이고요(웃음). 영어를 열심히 해 놓으라고 말하고 싶어요. 영어에 서툴러서 해외에서 오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곡을 좀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음악을 하게 해주는 동력은 무엇인가요?

세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자.' 그 마음 하나로 이 직업을 계속해 왔어요. 저희 스튜디오가 강남, 홍대보다 2분의 1 정도 저렴한 이유도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여건을 생각하지 않고 좀더 마음 편히 연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것도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또 무슨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하는 일들은 모두 놓지 않으려고요.

모든 질문이 '즐거움'으로 귀결되네요.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궁금해요.

미 준비 중인 솔로 앨범이 있어요. 원래는 편곡을 편곡자에게 맡겼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편곡까지 다 해보고 싶어서 마무리해 두었고, 보컬 녹음만 하면 완성돼요. 완성된 앨범은 내년 초에 낼 예정이고요. 연습 중인 뮤지컬도 잘 끝낼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12월에 다음 해 계획을 세우는데, 올해는 앞이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거리 공연뿐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열어놓고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세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공연이 없을 것 같아요. 영상 위주로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디제이는 다른 아티스트에 비해서 영상을 통해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디제잉은 보고 즐기는 쇼잖아요. 그래서 작곡에 몰두하려고 해요. 새로운 도전도 준비 중이에요. DJ SEFO가 아닌 다른 캐릭터를 탄생시킬 거예요. 저를 드러내지 않고 베일에 싸인 느낌으로 가보려고 해요.



예술로 연대하고 창의적으로 소통하는 문화재단들

문화재단.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봤지만,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문화재단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무엇을 위해 움직이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한다.

글 이소영 칼럼니스트



문화재단은 어떤 곳인가

검색 창에 '문화재단'이라고 적어본다. 지역 이름을 가진 문화재단부터 한 인물을 기리는 문화재단까지 참 많다. 심지어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에는 이런 질문도 있다. "문화재단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기에 여기저기 많나요? 취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문화재단은 각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등)에서 설립하는 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예술인과 시민의 창작과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축제를 운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마디로 우리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기관이다.



비대면 시민 강좌를 연 문화재단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지역 사회의 많은 문화예술 단체와 기관들이 힘들어했다. 살과 생이 오가는 길목에서 문화와 예술이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몸과 영혼이 지친 시민들은 끼니를 거르지 않듯 문화예술을 거르지 않았다. 오히려 문화와 예술로 에너지를 충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년 내내 많은 도서관은 '코로나 블루 문화예술로 극복하기'라는 키워드로 강연을 주관했으며, 여러 기업에서도 직원들을 위해 '문화예술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필자 역시 코로나 이후 비대면 미술 감상 강의를 상당히 많이 했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관악문화재단에서 진행한 '예술 Log-in' 프로젝트다. 강의는 음악, 미술, 역사 등 다양한 예술을 주제로 진행했는데, '베토벤 인사이드' 특강의 경우 황장원 클래식 칼럼니스트가 베토벤과 고전파 음악의 관계, 생애와 주요 사건, 대표작 등을 살펴보고, 그의 음악이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를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고 '관악책방: 고려를 읽어드립니다' 특강에서는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고려가 세계사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강감찬 장군의 일화 등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필자는 성인을 대상으로 '아트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을 담당했는데,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 프로그램이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은 비대면 예술 교육의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고자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설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프로젝트는 코로나 상황에 힘든 경기도민을 위해 '예술과 함께 떠나는 여행 가방'을 선물한다는 개념으로 진행된 '아트딜리버리'다. 초현실주의 거장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모티브로 상자 안에 캔버스, 붓, 물감, 도안 등 필요한 재료가 모두 제공되고, 신청자들이 함께 제공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집에서도 능동적인 미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상력과 창의력을 느끼게 하기 위한 시민 대상 프로그램이었다.



안방에서 즐기는 전시회와 뮤지컬 공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온라인 강좌는 과거부터 있던 콘텐츠지만, 2020년을 건디며 콘텐츠는 다양해졌고 기획에는 밀도가 생겼다. 특히 문화재단들이 실행한 온라인 전시회나 뮤지컬은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지난 12월,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선정작 뮤지컬 <루나틱>을 재단 공식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이색적인 시도를 선보였다. <루나틱>은 코믹 뮤지컬로, 출연자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상처들이 생길 때마다 극 중 '루나틱' 병원을 찾아간다. 이곳에서 '굿닥터'의 특별한 처방전을 받고 환자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적은 비용으로 안방에서 편하게 즐기는 온라인 뮤지컬은 향후 공연계의 회복 방법으로 좋은 대안이라고 본다.

금정문화재단은 2020년 10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하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전시 역시 비대면 형태로 개최했다. 전시회 이름은 <아나두 아티스트!>다. 조소·한복디자인·큐레이션·한국화 분야와 영상·문화예술교육·그림책·라이브페인팅·시각디자인 분야의 결과물을 금정문화재단 유튜브와 SNS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감상할 수 있게 해 전시회에 대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없앴다.

문화예술인을 위한 온라인 워크숍

코로나와 더불어 살기 위해 예술인과 예술단체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 누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고민한 문화재단들은 앞다퉈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겼다. 충남문화재단은 2020년 문화 예술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3회에 걸친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워크숍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술 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한 채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맞이하는 예술인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세미나에서 지역의 예술인들은 향후 창작 활동의 방향성과 확장성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했다.



문화예술계를 위로하는 선한 영향력

"예술에는 슬픔을 아름답게 승화하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힘이 있다."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에 나오는 브레네 브라운Brene Brown의 말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곳곳에서 한숨이 끊이지 않는 한 해였다. 언제쯤 이 한숨이 사라질까 예상하는 순간 다시 사회적 거리 두기는 강화되었고, 모두의 일과 내면에 기리가 생겨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시민들에게 예술의 힘을 알리고자 창의성을 발휘해 과거에 없던 새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의 구체적인 노력이 하나의 좋은 예시가 되어, 또 다른 선한 영향력을 만들고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다시 치유의 힘으로 돌아왔다고 믿는다.

문화재단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뮤즈Muse' 단체라고 말하고 싶다. 흔히 예술가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를 '뮤즈'라고 하는데, 신화에서 뮤즈는 아홉 명의 '무사이Mousai'으로 등장한다. 21세기 한국은 꾸준한 코로나 블루를 겪으면서도, 문화예술 교육 및 행사를 주최하는 문화재단들의 노력으로 각박하지 않은 일상을 보내고 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일수록 문화와 예술은 치유의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긴다. 힘들 때마다 예술에 기대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아보자.

이소영 미술 에세이스트

소통하는 그림연구소, 빅피쉬아트, 신나는 미술관의 대표로 일하며 다양한 연령과 분야의 사람들에게 미술사와 현대미술에 관한 강의를 하며 글을 쓴다. 지은 책으로는 《출근길 명화 한 점》, 《미술에게 말을 걸다》, 《그림은 위로다》,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갈 리르손, 오늘도 행복을 그리는 이유》 등이 있다.

가치 있는 문화 사업 필환경 시대의 축제



〈글라스른베리 페스티벌〉

문화예술 축제 현장은 환경적으로 최악의 장소다. 인기가 많은 대규모 공연일수록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등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친환경을 넘어 필환경 시대가 도래한 지금, 환경오염 문제는 축제 현장에서도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다. 이미 많은 축제 주최자들이 환경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노력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환경을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축제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

글 김상미

축제의 중심에서 환경을 외치다

몇 년 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축제 현장에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다. 환경오염은 문화예술계에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문객이 떠나고 난 뒤 축제 현장은 그야말로 쓰레기 천국이다. 무엇보다 수많은 관람객이 축제 현장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세계적인 페스티벌은 친환경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매년 6월 약 6만 5천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독일의 〈허리케인 페스티벌 Hurricane Festival〉은 '녹색록 Grün rockt'이라는 축제 문화를 만들어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녹색록은 축제 중에 발생하는 대량의 쓰레기와 음식물 낭비 방지를 중점에 둔다.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생태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대체품을 사용하고 페스티벌에서 소비되는 음식들은 지역에서 재배,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한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 남은 식료품은 무료 급식소에 기부한다. 페스티벌 티켓에도 환경을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돋보인다. 지역 철도망을 이용할 수 있는 승차권을 티켓에 포함해 수천 명의 관람객 이동에 따른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실천하고 있다. 〈허리케인 페스티벌〉에서 시작된 녹색록 문화는 독일의 여러 축제 현장으로 번져가고 있다.



〈원더컵스 페스티벌〉



나무와 버스를 재활용해 만든 페스티벌 씬트

사회와 환경이 상생하는 페스티벌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록 페스티벌, 영국의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 Glastonbury Festival>은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친환경 페스티벌로 손꼽힌다. 장장 5일간 이어지는 페스티벌 기간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들의 노력은 다양한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페스티벌 수익금 대부분을 그린피스, 옥스팜, 워터에이드 등의 환경단체에 후원하는 것을 비롯해 매년 축제 기간 설치된 7만 6천여 개의 텐트는 다시 깨끗하게 손질해 재활용 센터에 보낸다. 또 축제에 사용된 장화와 우비 등은 재정비를 거쳐 프랑스 난민촌의 이주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즐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페스티벌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 더불어 사는 법을 찾는 페스티벌로 발전한 셈이다.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은 5년을 주기로 안식년을 갖고 있다. 이 또한 축제 장소인 마이클 이비스의 농장 Worthy Farm의 회복을 고려한 친환경적 발상이다.

2014년에 처음 시작된 태국의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Wonderfruit Festival>은 동남아를 대표하는 친환경 예술 축제다. 일회용 플라스틱의 천국인 태국에서 친환경 페스티벌을 개최한다는 건 흥미로움을 넘어 태국의 문화예술계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원더프루트는 단순한 페스티벌에서 벗어나 모든 사물을 아끼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콘셉트를 갖고 있다. 페스티벌의 공연장이나 이용 시설을 나무와 친환경 재료로 만들고 축제가 끝나고 난 후에는 재활용한다. 2019년부터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해 모든 참가자는 축제를 즐기는 동안 개인 컵과 빨대를 사용하며 일절 쓰레기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는 참가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노력이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플라스틱 사용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런 현상 덕분에 강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원더프루트의 친환경적 노력은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고민할 축제의 다음 세대

한국에서도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페스티벌이 꽤 있다. 한국 록 페스티벌의 대표로 불리는 <지산 락 페스티벌>을 선두로 <그린플러그드 페스티벌>,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구례 자연드림 락 페스티벌> 등은 친환경이라는 콘셉트를 담고 있다. 이들이 실천 중인 친환경적 노력은 공연장 쓰레기 치우기,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으로 관객에게 편의 제공하기 등으로 외국 사례와 비교해 보면 상징적이고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할 수 있다. 한국의 축제 주최자들도 축제 현장의 쓰레기 처리 및 관리에 고민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사례처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는 부지런한 스태프를 고용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실이다.

축제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은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화적 노력을 하고 있다. 국내 페스티벌이 축제의 다음 세대를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친환경 페스티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축제 현장의 깨끗함을 넘어, 축제를 친환경적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 개발과 관객 참여를 유도하는 실천 가능하고 지속성 있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자연 소재로 만든 <원더프루트 페스티벌> 공연장

LIVE

공작 꽃다발을 내미는 손 회화 작가 황정경

황정경 작가는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작가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발전하길 바란다. 공작의 화려함보다는 그가 처한 비현실적인 모습에 더 매혹을 느끼는 작가. 부족함을 알기에 반드시 나아질 수밖에 없는 작품을 그린다. 화려함 속에 감춘 꿈을 찾기 위해 오늘도 깃털 속의 눈을 가만히 응시한다.

글·사진 김건태



당신은 누구인가요?

공작새와 꽃, 글자를 이용해 회화 작업을 하는 황정경이에요. 작가 생활을 한 지는 15년이 되었는데, 이전에는 회사에 다니며 디자인 작업을 했어요. 대학 졸업 후 편집 디자인 회사에 취직해 아이들용 학습지를 만들었죠. 당시는 IMF 시기라 회사 여건이 좋지 못했어요. 덕분에 디자인 작업뿐만 아니라 개발, 편집, 사진, 인쇄까지 수많은 작업을 병행했어요. 물론 그때의 경험이 후에 도움이 되긴 했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던 시기였죠. 눈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일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고 동네에서 미술을 가르쳤어요. 일을 하던 버릇이 남아서 다섯 살 아이에게 기획부터 발표까지 많은 걸 가르쳤죠(웃음). 사실 이런 경험들을 웃으며 이야기하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전공에서 동떨어진 일을 한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다양한 경험 덕분에 잡다하게 할 줄 아는 건 많았지만 그것들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죠. 정식으로 작품 활동을 하게 되면서 원 없이 작업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기에 지치지 않고 그림을 그렸죠. 처음에는 극사실화를 일부러 더 세밀하게 그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작가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되게 잘 그린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아요. 맹목적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들 어떤 주제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작업하더라고요. 그 뒤로 무언가를 표현해야겠다는 걸 항상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요. 동시에 대학원에 다니며 못다 한 공부를 심화해 배우기도 하고요. 그림에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득해요. 일 욕심이 많거든요.





© 황정경, 너에게 주고 싶은 딱 찬 내 마음

당신은 어떤 작업을 하나요?

어느 날 공원에서 공작새를 봤어요. 꼬리를 펼친 모습을 본 순간 꿈꾸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현실이 아닌 것 같았죠. 사실 그렇게 꼬리가 길고 화려하면 생태계에서 살아남기가 불리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고집한다는 것에 더욱 기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뒤로 제 작품에 공작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비현실적인 공작의 생김새를 보며 저 자신과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가사와 육아,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작가 생활을 한다는 게 제게는 비현실적으로 다가왔거든요. 내가 과연 작가로 살 수 있을까?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처럼 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제 안의 꿈과 욕망을 한 마리 공작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다른 한편으로 꼬리 깃털의 수많은 눈을 보며 관계를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것 있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면 어느 순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들어지는 사이가 생기기도 하고요. 공작의 깃털과 수많은 눈을 조화로움 속에 그리며 일종의 '공통의 선'을 말하고 싶었어요. 모두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 같은 것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담아 완성한 작품이 '너에게 주고 싶은 딱 찬 내 마음'이에요. 공작을 꽃다발에 담아 그리는 언작으로, 다른 작품보다 화려한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사실 전시를 위해 급하게 작업해서 일주일 만에 완성한 작품인데요. 서로 다른 개개의 우리(꽃)가 다발로 묶여 한데 모여 있다는 걸 표현했어요. 정형과 비정형의 조화를 특히 더 고민하며 만든 작품이에요. 가령 물감을 뿌리고 던지는 등의 의도치 않은 표현을 얼마나 더 할지, 디테일한 묘사를 얼마나 더 할지 고민하는 식이죠. 추후에 제 실력이 더 발전하게 되면 그래픽 작업을 더한 작품도 만들어 보고 싶어요.

당신은 어떤 공간에 머무나요?

제 작업실은 8년을 머문 공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작은 섬네일 스케치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큰 작품은 따로 말리는 시간이 필요해서 집에서 작업하거든요. 평상시엔 출근하듯 아침에 작업실에 와서 해가 지면 문을 닫아요. 큰 창으로 빛이 들어오는 오전 시간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최근엔 대학원 때문에 많이 바빠져서 한 번에 몰아서 작업을 해요. 사실 시간이 부족하다고 많이 느껴요. 그래서 오롯이 제 작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업을 구할까 생각 중이에요.

새로 갖게 될 공간은 사람들에게 열린 곳이었으면 해요. 요즘 그림에 글자를 넣어 작품을 그리는데요. 사람들 반응이 좋아요. 숨겨진 글자를 찾으려 더 열심히 그림을 감상하죠. 언젠가 지인 중 한 명이 자기 같은 사람도 전시실에 들어가도 되는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미술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문턱이 높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깨달았죠. 그래서 저는 더욱 쉽고 재미있게, 기본 전환이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그림이나 전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미술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거든요.

저 역시 기본 전환이 필요할 땐 화성 용건릉을 산책해요. 부지가 되게 크잖아요. 주변에 사는 분들은 얼마나 편안하게 산책할까 생각하며 부러운 마음을 느껴요. 무덤이라고 해서 근엄한 느낌을 가지거나 부담을 느끼지 않는 모습이 좋아요. 그런 일상의 자연스러움이 제 작품 안에도 스며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2014 이현숙

THE 가다

WALK

시인 김명철과의
산책

FEATURE

색깔을 찾는
문화 데이트

TICKET

홍승혜 x 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SKETCH

자연과 음악

CHECK

한 발짝
두 발짝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는, 먼지 작가 김명철과의 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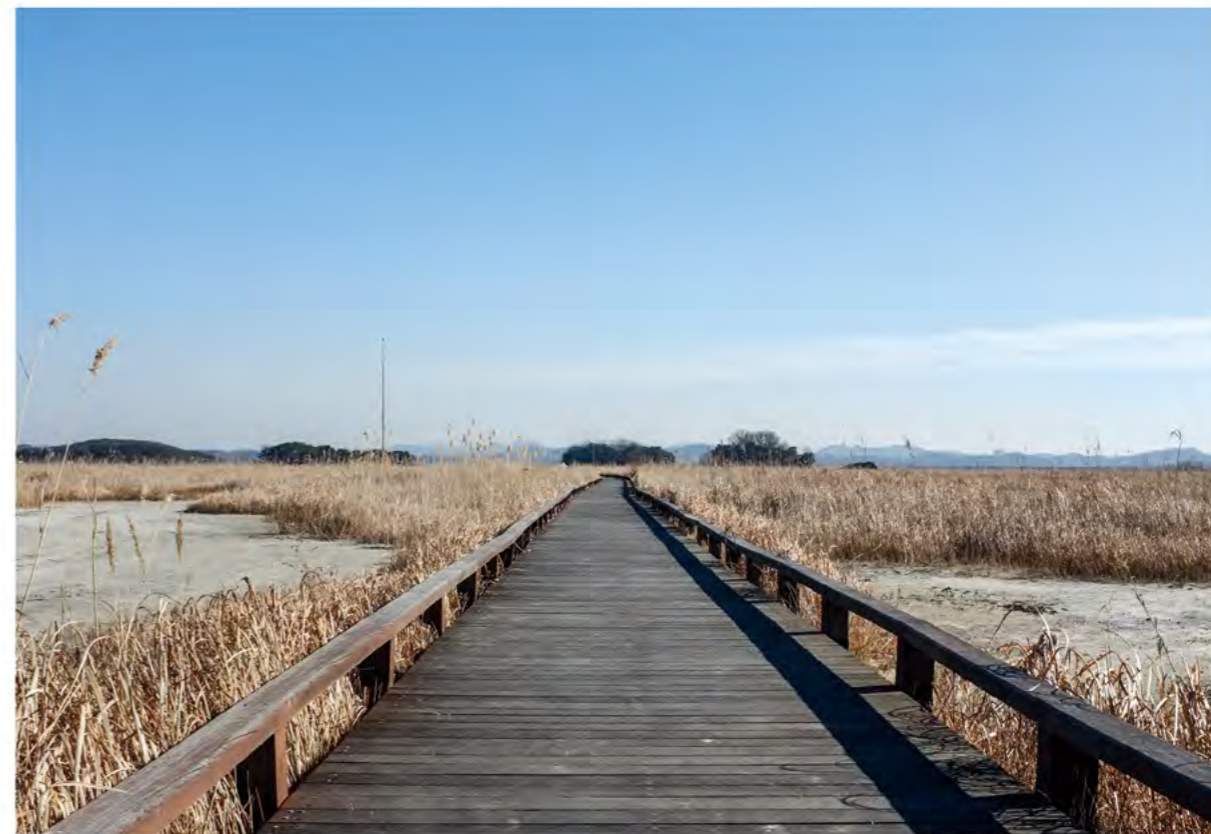
문득 나 자신이 의아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얼굴과 손의 생김새부터 이름, 성격, 목소리까지. 그런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나와 비슷한 사람들, '사람'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의 기원까지 궁금해지곤 한다. 남겨진 역사보다 더 먼 과거에는 어떤 것들이 존재했을까. 나는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작은 질문은 우주처럼 팽창한다. 화성의 '공룡알 화석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가서 한나절 보내기 좋은 장소다. "천 년의 시간에 또 십만 년의 시간을 곱하면, 1억 년의 시간이 됩니다." 김명철 시인의 사유를 따라 공룡알 화석지를 천천히 걸어 보았다.

글·사진 전진우

고라니의 초대

안산 분오동에 살던 김명철 시인은 좀더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은 마음에 화성 남양읍 장전리로 이사했다. '고라니 가족과의 만남.' 지금의 집을 찾게 된 과정에는 작은 미소를 짓게 하는 사연이 있었다. "이사를 마음먹고서, 우선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반경을 넓혀가며 이사할 곳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으로 농로가 보이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 불과 10여 분도 채 안 되어 한 마을이 나타났어요. 좁은 농로를 따라 아카시아 가시에 차를 굽혀가면서 들어가는데, 글썽, 고라니가! 그것도 고라니 가족이! 천연덕스레 차를 막고 도망치지도 않으면서 눈을 마주치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들어가면서 폐농가를 하나 발견했고, 주인을 찾아 무작정 농가 구매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10여 년 전 일입니다. 화성과의 놀라운 인연이지요? 장전리라고 할 때의 장獐이라는 한 자어는 '노루 장' 자랍니다."

그곳에서 오래된 농가를 하나 빌린 그는 3년간 집필 활동을 하며, 때 묻지 않은 자연과 사람들을 만났다고 말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사할 당시에는 반딧불이도 보이던 등네. 그곳에서 본 것들이 시에 그대로 담기는 일은 적지만,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눈과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화성에 거주하는 그에게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고정리에 있는 공룡알 화석지 이야기를 꺼냈다. 원래 바닷물이 차 있던 곳에 이제는 넓은 갈대밭이 펼쳐져 있는 곳. 송산그린시티 전망대에 들렀을 때, 그 갈대밭 한가운데 공룡이 그려져 있는 건물 옆을 차로 지나던 일이 떠올랐다. 몇몇 사람들이 건물에서 나와 멀리 들뜬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도 기억이 났다. “지난 촛불집회 때 좌편의 분신 사건과 우편의 투신 사건으로 누군가 목숨을 버리는 상황을 보고 ‘생명의 기원’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생명이 어디에서 왔다고,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일까, 의문을 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런저런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공룡알 화석지를 종종 찾는 이유에 관한 대답으로, 그는 자신이 그곳에서 자주 떠올리는 생각을 들려주었다. 나의 기원이 무엇일까. 내 몸의 물질은 어디에서 왔을까. 그가 들려준 여러 화석들에서 나는 ‘먼지’라는 단어에 관심이 생겼다. 태양계가 생성된 이래로 지구에는 매년 1만 4천 톤의 우주 먼지가 떨어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생명체의 기원이 이 먼지 속 유기물질일 수 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였다.



“저는 최근 몇 년간 이 ‘먼지’에 집착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먼지가 된다는 옛말이 옛말로만 들리지 않더라고요. 먼지라는 무기물질 혹은 그것이 변환된 유기물질이 나의 기원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 사변患辨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어쩌면 우리는 먼지의 후예인 셈이 아닐까요.” 그의 생각을 듣다 보니,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의 기원이 머릿속에 잠시 그려졌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먼지라는 물체의 이미지와 어쩐지 맞닿아 있는 것 같았다. 작은 것, 잘 보이지 않지만 어디에나 있는 것, 의미 없어 보이지만 완벽한 의미를 가진 것. 먼지는 아주 사소한 의미와 거대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공룡알 화석지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보면 오랜 시간 쌓여온 퇴적물의 단면을 볼 수 있는 바위들이 나온다. 그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길고 긴 시간이 느껴져서, 나의 시간은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내가 이 세계의 시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주 잠시 지구를 구경 온 이방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하지만 김명철 시인이 말한 대로 우리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먼지’라는 하나의 사소한 기원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알 수 없는 동질감이 생긴다. 내가 공룡의 일부고 공룡도 나의 일부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우리들에게 시간은 무엇일까. “이 알돌들은 중생대 백악기 때, 그러니까 1억 년의 시간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천 년에 십만 년을 곱한 시간이 1억 년입니다.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이라면, 이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어쩌면 아주 오래전 저 돌들에서 떨어져 나온 부스르기가 나라는 인간의 기원이었기 때문 아닐까.” 그는 공룡알 화석지에 다녀온 11월의 어느 날, 집에 돌아와 쓴 시가 있다며 보여 주었다.

화석지에서

김명철

공룡알 화석지로 향하는 길을 따라
갯달래가 꽃망울을 밤하늘의 불꽃처럼 터뜨리고 있었네
밭도 글도 갈수록 퇴화되어
오래전에 서로의 수심 깊이 묻어두었던
작은 알돌들은 여전히 식어가고
백 년도 아니고 천 년도 아니고
천만 년에 천만 년을 열 번 더하는 시간이란 뭘까
내가 당신 속으로
당신이 내 속으로 들락거리던 그때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도 화석이 될 수 있을까
퇴적과 지층 퇴적과 지층 퇴적과 지층
지층들 사이에서 부화를 기다리고 있을 알돌들
당신은 갯벌에 묻혀 있는 알들이
언젠간 부화할 것이라고 이 빙하기가 끝나면
언젠간 눈을 떠 맑고 투명한 손톱을 드러낼 것이라고 하였네
노을은 기울어지고 있는데
화석이 되어가는 갈대숲 가을의 사이 길을 따라
당신은 노을의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동지에서 벗어난 알 하나가 먼 지평선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네
천 년이란 게 하찮다는 듯

먼지와 씨앗

그가 들려준 먼지 이야기는 내게 씨앗 하나를 떠오르게 했다. 언젠가 커다란 나무를 한참 올려다보며 했던 생각. ‘작은 씨앗 속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되기 위한 모든 정보와 가능성이 들어 있었다니.’ 작고 단단한 알맹이 하나에 몇 백 년의 계획이 전부 적혀 있었다는 생각에 커다란 신비함을 느꼈던 기억이었다. 그가 말한 먼지는 그 씨앗보다도 더 커다란 의미였다. 복잡해 보이는 삶의 굴곡들도, 사랑과 슬픔, 도전과 좌절을 그리고 공룡의 삶과 나의 삶, 세상의 모든 커다란 나무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먼지에 쓰여 있는 것 아닐까. 그의 사유 덕분에 나는 ‘지구’라는 제목의 동화책을 읽은 기분이 들었다.

김명철 시인

시인은 ‘틈’외 네 편의 시로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등단했다. 인간의 본질을 다루는 시를 쓰는 그는 화성작가회의 초대 회장을 맡았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한 충전 색깔을 찾는 문화 데이트

작년 이맘때 새로운 도전을 다짐했지만, 계획에 없었던 전 세계적인 바이러스로 일상조차 잃어버린 한 해를 보냈다. 새해를 맞이한 지금, 전시를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달릴 준비를 해보자. 코로나 블루를 치유해 줄 컬러풀한 전시를 소개한다.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 뮤지엄그라운드

전광영 60년 화업 기념전시 전광영 Chapter 2: Blue & Yellow



© 뮤지엄그라운드

용인에 위치한 뮤지엄그라운드의 설립자, 전광영 작가의 60년 화업을 기념한 <전광영 Chapter 2: Blue & Yellow>전이 진행 중이다. 전시는 총 7개의 챕터로 구성되며, 이번 전시는 그중 두 번째 챕터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진행된 챕터 1은 작가가 1970년대 미국 유학 생활 시절부터 작업한 초기 회화 작품과 작가의 시그니처인 'Aggregation, 집합' 연작의 초기작까지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전시였다. 현재 진행 중인 챕터 2는 색깔을 주제로 한 테마전으로, 파랑과 노랑을 사용해 특별하게 개조된 전시장에서 작품에 온전히 몰입해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패기 넘치는 예술적 혼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인해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연제 2021년 2월 7일(일)까지, 수~일 10:00~18:00(입장 마감 17:30)
어디서 뮤지엄그라운드 제2전시실
누구와 강렬한 작품을 함께 보고 싶은 이들과
TIP 뮤지엄그라운드 홈페이지 museumground.org 에서 사전 예약 필수

다채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색깔
아트 인 더 컬러



© 호반아트리움

살이 다채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 컬러풀한 공간에서 컬러로 교감하며 생기를 되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광명 호반아트리움의 기획 전시 <아트 인 더 컬러>는 색을 주제로 기획한 16개의 체험형 공간의 문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아티스트들의 색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대규모 기획 전시로, 이스라엘, 러시아, 대만, 홍콩 등 7개국 12인의 아티스트 작품 24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회화와 조각, 일러스트, 미디어, 인터랙티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통해 컬러에 대한 공감각적 경험을 할 수 있다.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며 누구나 즐길 만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다채로운 컬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각을 환기해 보자.

연제 2021년 2월 28일(일)까지, 화-일 10:00-19:00(입장 마감 18:00)
어디서 호반아트리움 아트홀, 스페셜 존
누구와 가족 또는 친구들과
TIP 호반아트리움 홈페이지 hobanartrium.com 에서 예매

*상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며 이해하는 어린이 전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생물의 세계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코로나 시대,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세균과 바이러스 같은 개념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줘야 할까? 고민하는 가족에게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의 과학 체험 공간 '사이언스랩'에서 진행되는 기획 상설전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미생물의 세계>를 추천하고 싶다. 사이언스랩은 일상 속 다양한 궁금증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풀이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전시 및 체험 공간이다. 이번 전시는 미생물과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의 삶에 공존하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질병을 일으키는 나쁜 균과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균이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우리의 집 안과 밖, 몸속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을 관찰해 보고, 바이러스 예방법도 알아보며 체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

다. 아이들과 함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대한 매력을 지닌 미생물의 세계로 빠져보자.

연제 화-일 09:30-18:30
어디서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2층 사이언스랩
누구와 아이들과

TICKET

ROYAL × PARK 2021년 첫 전시 홍승혜 x 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사각형'을 전시로 만나본다면 어떨까? 로얄엑스파크에서 2021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계에서 중추적인 활동을 해 온 홍승혜 작가와 무섭게 떠오르는 신예디자이너 문승지 작가가 함께하며, '사각형'을 모티브로 이루어져 있다. 두 작가의 작품이 담고 있는 이야기는 서로 다르지만 사각형이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자 출발점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예술과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경험하게 될 이번 전시를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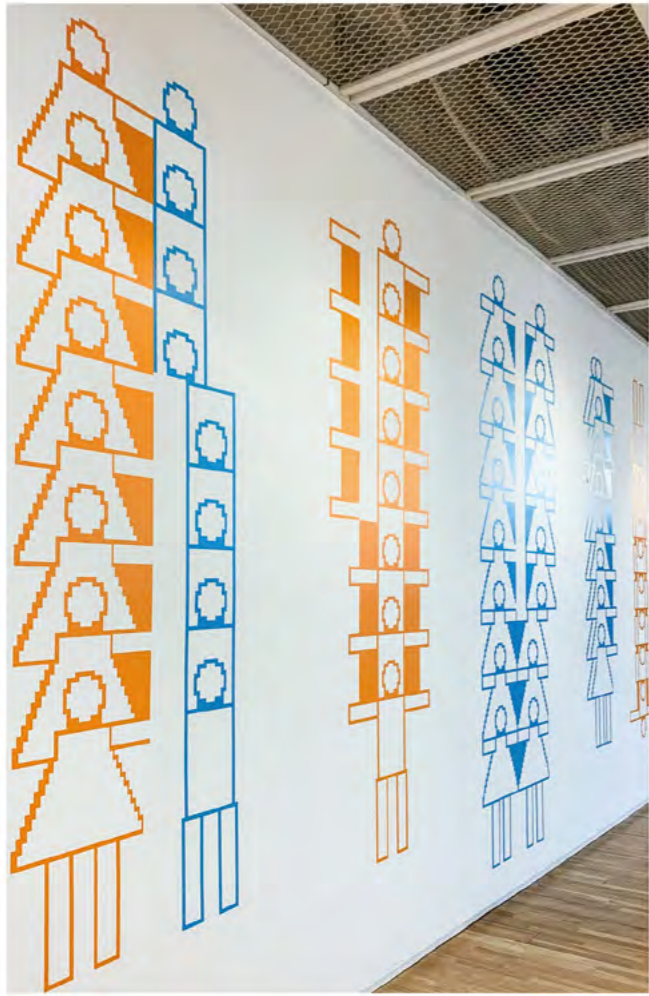
글·사진 차유나(기획홍보팀)



R2



홍승혜 | 공중 무도회/Aerial Gala
| Polyurethane on Plywood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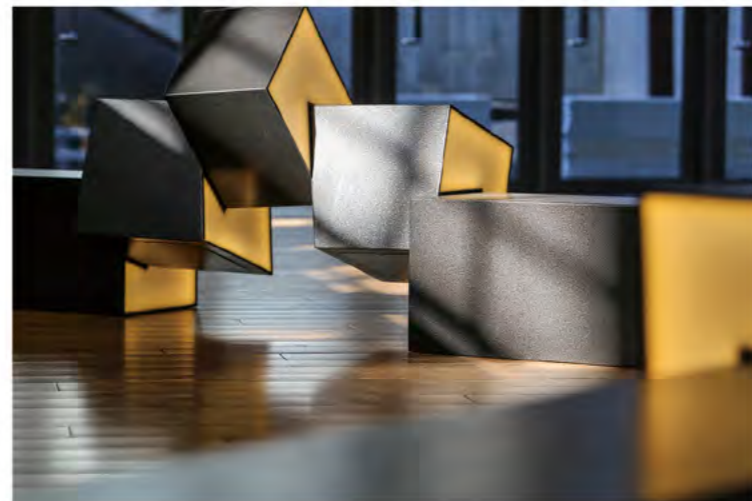
홍승혜 | 브레이크 댄스 Break Dance
| Adhesive vinyl sheet on wall | Dimension variable | 2020



홍승혜 | 서치라이트 Searchlight
| Flash animation, GarageBand sound | 2020
문승지 | Animate_plant box | Steel & Plant | 2020



문승지 | Animate_plant box | Steel & Plant | 2020



문승지 | Animate_Bench | Steel & Lighting | 2020

홍승혜 x 문승지: 사각형에 대한 경의
 전시기간 2021년 1월 6일(수)~3월 18일(목)
 전시장소 로얄엑스파크(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사청로 895-20)
 관람시간 10:00~17:00
 전시정보 hcf.or.kr
 * 전시는 사전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약

CHECK

발길 닿는 대로 한 발짝 두 발짝



목적지를 향해 걷는 건 나의 오늘을 다부지고 씩씩하게 가꾼다. 정확한 이정표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나침반, 그리고 정교한 지도가 있다면 그 어떤 탐험꾼도 부럽지 않을 테다. 그러나 가끔은 긴장을 풀고 발길 닿는 대로 하염없이 걷고 싶은 날이 있다. 지나는 길목에 들꽃이 보이면 주저 않아 인사를 건네고, 목직한 원두 향이 풍겨 오면 코끝을 따라 살금살금 나아가고, 가끔은 지나는 강아지랑 눈을 맞추고, 골목길의 고양이랑 교감도 하고. 이토록 평화로운 시간이 오늘따라 왜 이리도 다디달까.

글 이주연



© 포시즌키친

든든한 한 걸음 포시즌키친 🍴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던가. 목적이 있어도 밥부터 먹고 보자는데, 목적 없는 걸음이라면 더욱더 단단히 준비해야 할 터! 오늘은 꾸덕꾸덕한 질감의 양식이 먹고 싶어 포시즌키친으로 향한다. 파스타, 리소토, 스테이크, 감바스... 브런치라는 단어 아래 나열된 이국의 메뉴가 배 속을 살금살금 간지럽히고, 군침을 몇 번 삼키며 고심 끝에 메뉴를 고른다. 이토록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이라면 화성에서도 세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목직한 소스로 휘감긴 정성스러운 한 그릇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니 잔뜩 굳어 있던 어깨가 풀리고 마음에 온기도 살살 돌아오는 느낌이다. 울겨울 추위도 두렵지 않을 것 같은 이 맛, 이토록 든든한 한 끼가 정처 없는 걸음에 고마운 기운을 불어넣는다.

A. 경기도 화성시 동탄치동천로3길 12

o. 월-토 11:00-22:00(라스트 오더 20:30), 일 휴무

아름다운 두 걸음 구름꽃플라워 🌸

오늘의 목적 없는 마지막 걸음은 마음을 아리따wie 가꾸어주는 꽃집이다. 평범한 꽃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생화의 오롯함을 꺼내어 보여주는 꽃집. 구름꽃플라워에서는 특별한 날을 더욱 정성스레 가꿔주는 손길이 보태진다. 이를테면 생화 돌상 같은 것들. 아이의 첫 생일이 활짝 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의 첫 생일이 더욱 향기롭길 바라는 마음으로 색색갈의 식물을 돌상에 올려 반짝이게 만들어주는 일. 그런 마음과 손길이 깃들어서일까, 이곳에서 피어나는 향기는 보통의 꽃 향기보다 훨씬 다채롭고 은은하다. 마음에 깃든 향기를 맡으며 돌아가는 길은 더없이 사랑스럽다. 화성시 곳곳을 누비며 정처 없이 거닌 오늘의 여정을 '아름답다'는 말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품에 꼭 안고 돌아온 한 다발의 꽃은 맑은 화병에 꽂고 살피워야지.

A. 경기도 화성시 지산2길 33 8 우리빌 1층


o. 화-일 10:30-20:00, 월 휴무



© 구름꽃플라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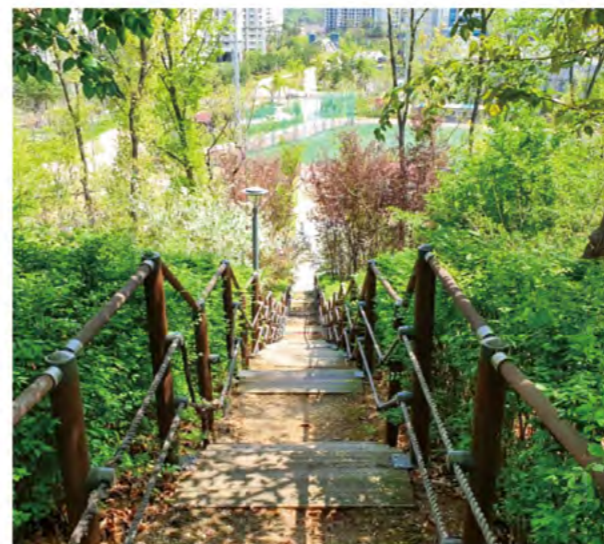


© 일리에 콩브레


향긋한 세 걸음
일리에 콩브레 

고풍스러운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 창문은 둥근 아치형이다. 유럽 어딘가를 상상하게 하는 멋스러운 이곳의 이름은 '일리에 콩브레'.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등장하는 마을과 동명인 이곳은 고고한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고, 버터 내음이 코끝을 간지럽혀 뭉개어 흘린 듯 사뿐사뿐 들어오게 만드는 곳이다. 원래 목적은 향긋한 커피로 입가심을 해보자는 거였지만, 베이커리의 면면이 심상치 않아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다. 한동안 매대 앞을 서성이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니 여기가 바로 제과기능장의 국가대표 빵집이란다. 어쩐지, 빵들의 자태가 보통이 아니더라니! 갓 구워진 노릇노릇한 빵들 앞에서 어떤 걸 고를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관찰하며 빵을 한 입 베어 문다. 거짓말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유럽의 풍경에 마음이 들썩! 작은 마을에 지금 막 입장한 수줍은 여행자처럼 설레는 걸음을 한 발 내디뎌본다.

- A. 경기도 화성시 풀무골로 19-4
- . 매일 09:00-22:00



© 화성시

산뜻한 네 걸음
청계중앙공원 

문득 자연을 본 지 오래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고는 곧 의아해졌다. 집 앞 슈퍼마켓에만 가도 지척에 보이는 게 풀이며, 흙이며, 하늘이며, 나무인데 왜 자연과 멀리 살았다며 자조한 걸까. 아쉬운 생각을 지우기 위해 오늘은 공원으로 향한다. 동탄의 푸른 숲, 청계중앙공원엔 잘 지어진 정자도 있고, 타박타박 걷기 좋은 나무 계단도 있고, 둘러보면 곳곳에 산뜻한 나무도 많다. 숲 사이를, 길 한가운데를 걷다 보니 이대로 하염없이 자연을 걷고만 싶어진다. 주변을 살피니 청다운 연인, 다정한 가족, 해맑은 아이들이 공원 곳곳을 채우고 있어 마음이 풍요롭다. 이 평화를 끌어안고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두 손에 고이 담는 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상쾌하고 깨끗한 일이 아닐까!

- A. 경기도 화성시 청계동 527



THE 하다

HELLO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LIST
 흔들리듯 춤을 추듯

PEOPLE
 화성인의 방향

CULTURE & ISSUE
 1·2월 문화소식

LETTER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변화하는 시간을 지나 바라본 오늘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로 업무 변화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화성시미디어센터는 화성 시민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주로 운영해 왔는데요. 코로나19로 대면이 어려워지면서 수업을 대부분 온라인 콘텐츠로 만들게 됐어요. 업무 방식에 큰 변동이 생긴 거죠. 재단의 다른 팀들도 프로그램 진행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게 되면서 저희 미디어팀이 합류해 서로 협업할 기회가 많아지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로 많은 움직임을 경험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이전의 미디어센터는 시민 교육, 미디어 활동가 양성에 집중하는 사업을 주로 이어왔다면, 올해는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문화 행사를 온라인으로, 영상을 통해서 가깝게 마주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에도 함께 주목하게 됐어요. 원래 준비하고 있던 프로젝트였지만 더 빠르게 당겨온 셈이죠.

갑작스러운 변화에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많은 시민분들의 일상, 크게는 삶 전체가 달라지기도 했잖아요. 그중에는 생계에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미디어센터는 어떤 위치에 서야 할까, 역할 자체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 격동의 시기에 문화예술 분야가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방식이 통할까, 하는 등의 질문을 던져 보기도 했죠. 결국엔 질 좋은 영상으로 시민분들께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가 코로나 블루 같은 현상을 조금이라도 덮을 수 있는, 그런 해소를 선물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지게 됐죠.

상황은 어렵지만 미디어팀은 어떤지 긍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재단에서 근무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원래는 피아노를 전공했다고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화의 시기를 거쳤는지 궁금해요.

아주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어요. 아마 네 살이었던 것 같아요. 글자를 '도레미'로 배운 거죠. 늘 피아노를 쳐왔고 당연히 대학도 피아노를 전공했고요. 그런데 세상에는 재능 있는 연주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점점 피아노를 치는 일에 대한 호기심보다는 그 뒤의 일들이 궁금해졌어요. 늘 훌륭한 연주자들이 설 무대가 부족하다고 느껴왔기 때문에 어느새 좋은 무대를 만드는 기획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게 됐죠. 그런 생각을 갖고 졸업을 한 후에 공연 기획사에 입사했어요. 그사이에 목표는 더 확고해졌고요. 여러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는 화성시문화재단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입사까지 이어지게 됐죠.

공연기획팀에 좀더 어울리는 입사 동기네요.

그렇기도 하죠(웃음). 물론 미디어팀 업무도 만족하고 있지만 자연히 공연기획팀 업무에 호기심이 많아요. 기회가 닿는다면 공연기획팀과의 협업도 해보고 싶어요.

공연기획팀과 함께 공연을 꾸리고 영상을 제작해 시민분들께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고민해 보고 싶어요. 이 시기를 오히려 잘 이용해 현명하게 물어간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성시문화재단 사람들 새로운 길 위에서

기억이 닿는 시기부터 오래도록 피아노를 쳤던 그녀가 건반에서 손을 내려놓기로 했다. 항상 서던 무대에서 내려와 그 뒤에 서 보기로 한다. 이걸 '용기'가 아닌 말로 대신할 수 있을까, 늘 걷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일, 다른 길을 찾아 첫걸음을 떼는 순간. 화성시미디어센터의 늦은 오후, 안팎으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글 김지수 사진 강현옥



미디어팀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예술가분들과 연이 닿았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원래는 예술가분들과 작업할 기회가 많지는 않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팀들과 협업하게 되면서 예술가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분은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에서 안무 감독을 맡고 계신 김기수 선생님이에요. 댄스 분야에서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다른 분야에도 열정적이고 재능까지 가지고 계신 모습에 배울 점이 많았어요. 영상 제작부터 유튜브 기획, 와중에 크루를 꾸려서 공연까지 하시고, 여러 콜라보레이션 작업들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자극이 되기도 했고요. 밝은 에너지를 얻기도 했죠. 이런 아티스트를 일하면서 만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행운이에요.

좋은 경험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미디어센터는 시민 교육을 위한 사업을 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행사가 있나요?

올해 초 겨울방학 프로그램으로 '새싹 크리에이터 체험 교실'이라는 행사를 기획했어요.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프로젝트였죠. 게임, ASMR, 라디오, 뉴스 콘텐츠

제작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채워졌어요. 센터에 있는 장비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며 나름 성공적인 마무리를 이끌었던 것 같아요. 참여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았고요.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라 그런지 마음에 남아요.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했고, 다행인지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이전에 진행한 행사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새싹 크리에이터라니 기발하네요.

센터에서 늘 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 다양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모여서 좀더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죠. 미디어센터에는 좋은 장비와 공간이 갖춰져 있어요. 센터의 장점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요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정보 윤리를 가르쳐주고 싶기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이 희망하는 꿈의 직업이 크리에이터이기도 하고요. 활기를 느낄 수 있는 작업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미디어센터의 시설이 상상보다 더 탄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만약 화성시의 문화 공간을 소개한다면 미디어센터가 가장 먼저 말하고 싶어요. 제가 이곳에 근무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웃음). 정말 다양한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큰 화면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VR 체험 공간도 함께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라디오 부스, 포토 스튜디오, 영상 장비도 다양하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공간의 존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아쉬워요.

일반 시민들은 어렵게 느낄 것 같아요. 아직은 생소하게 다가오는 면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웬지 카메라를 잘 알아야 할 것 같고요. 간혹 버스 정류장 이름인 줄 알았다는 분들도 계세요(웃음). 사실 그냥 자유롭게 둘러서 책 한 권 읽고 가셔도 괜찮은 공간이에요.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좀더 편하게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요즘 회사 내에서 하는 고민이 무엇인지도 궁금해요.

혼자 사업을 기획하다가 협업을 새로 하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부분에서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하고 그만큼 업무가 많아지기도 했어요. 모두가 각자의 팀에서 그 분야에 몰두하다 보니, 색깔은 하나고 계속 짙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협업하면서 그 색을 좀더 다양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오히려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회사에 커다란 움직임이 생겼다면 이런 지점인 것 같아요. 아마도 큰 과도기를 거치면서 여러 변수에 대처해야 하는 것이겠죠. 모든 일엔 단점과 장점이 분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고 사업을 이어가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해요.

고민이 많겠네요. 이런 와중에 회사 생활에서 안식처가 되는 존재가 있을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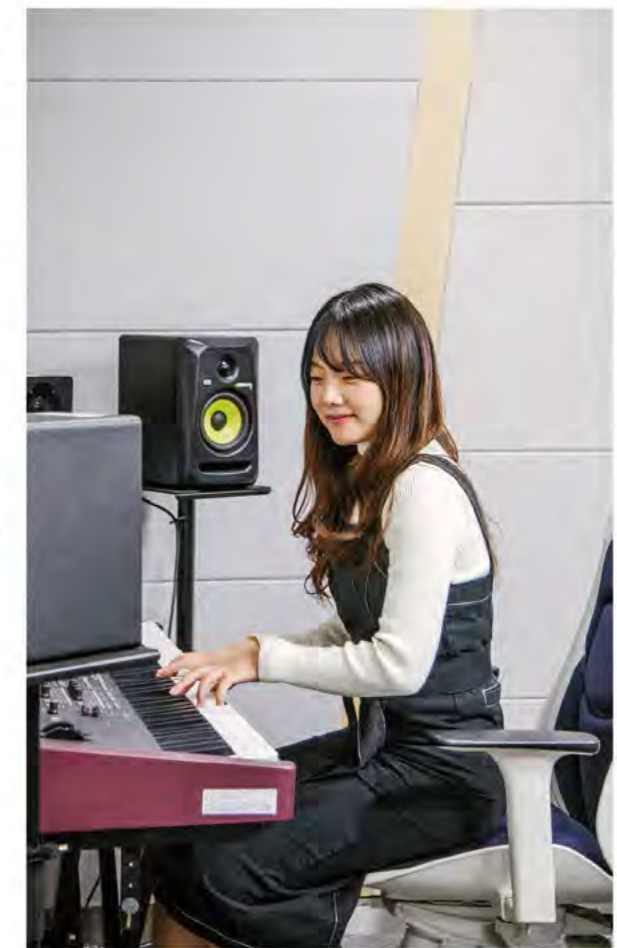
미디어 관련 일을 계속하다 보니 일 속에서 안식처를 찾을 때가 많아요.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할 땐 참고 영상을 많이 봐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잠시 쉬는 느낌을 받기도 하죠. 일하는 중이지만 일과 숨이 동시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미디어 분야 일의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일 속에서 안식을 찾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여기면서 그런 시간을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이네요. 최근에 화성 시민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화성은 어떤 도시인가요?

제가 화성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와닿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통계적으로 화성에는 아이들, 청년층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인지 생동감을 느끼는 순간들이 잦아요. 사소하게는 미디어센터 뒤편에 놀이터가 있는데,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면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그런 시간들은 일종의 환기 구실을 하는 것 같아 좋아요.

화성의 의외의 모습을 발견한 것 같아요. 새로운 한 해는 어떻게 보낼 생각인가요?

요즘 시민과 함께하는 활동에 재미를 붙이고 의미를 알아가고 있어요. 다음에 이뤄질 사업들에 관한 상상을 하면서 즐겁기도 해요. 요즘은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날들을 상상해 보는 생산적인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는 이런 순간을 단 깎하며 잘 지내고 싶어요.



막다른 길이면 어때요 흔들리듯 춤을 추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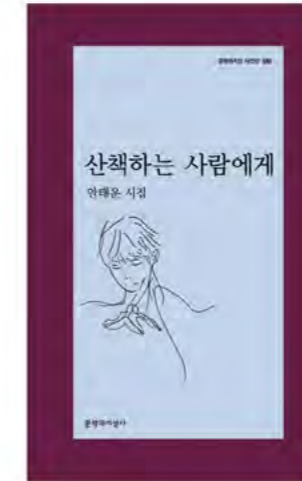


종종 목적도 방향도 없이 해매고 싶을 때가 있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상관
않고 발길 가는 대로 흔들리듯 걷고 싶은 그런 날. 가끔 막다른 길에 다다라도
빙긋 웃고 돌아 나갈 여유가 깃든 날, 가볍게 열어보기 좋은 이달의 리스트!

글 이주연

헤매는 산책법

《산책하는 사람에게》, 안태운, 문학과지성사, 2020



“오늘은 하루 종일 기만히 있었어. 웬지 움직임 수가 없었으므로 내내 누워 있었지.
몸을 뒤집어 겨우 엎드려볼 수는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었지?
나는 어떻게? 갑자기 이런 물음이 떠올라서 이상했다.”

안태운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되었지?》 중에서

헤매기 좋은 장소로는 아무래도 침대가 제격일 것 같다.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에 바로 누워 천장과 마주
하거나 옆으로 누워 벽을 보면서 가고 싶은 대로 흘러가기. 헤매 중에서도 가장 간단하고 편안한 헤매이
아닐까. 주로 휴일에 일어나는 이 헤매는 어떤 이에겐 게으름이라 요약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에겐 팔자
좋다는 말로 수렴하기도 하지만, 헤매는 사람은 안다. 살아가는 데 이 멍한 헤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단한 한 주를 보내면 헤매는 일이 다디단 보상처럼 느껴진다. 일주일을 애써 보낸 나에게 주는 오롯한
시간. 그러나 코로나19로 산책조차 기겁지 않을 때, 문득 책장에 쌓아둔 책 중 한 권이 시아에 들어왔다.
안태운의 《산책하는 사람에게》. 떠올리지 않아도 떠도는 느낌을 줄 것 같아 꺼내 보니 뒤표지에 이런 문장
들이 쓰여 있다. “산책하면서 / 나는 내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 나는 내 슬픔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
산책하면서 / 나는 내 꿈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 나는 내 상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 산책하면서 / 나는
내 그리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 멀리서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쪽으로 헤매도, 저쪽으로 헤매도 괜찮다
는 주문 같다.

《산책하는 사람에게》 안에는 갖은 날들이 있다. <하루>도 있고, 그토록 원하는 <휴일>도 있다. 사계절이 모
두 녹아 있고, 마당이나 호수도, 숲도 있다. 개중에서 특히 좋은 건 산책이라는 단어와 풍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고, 귀여움을 잘 아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다. <귀여움을 잘 아는 친구에게> 같은 제목
을 읽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을까. 안태운의 시집을 읽으며 실컷 헤매다 보니 하루가 훌쩍 갔다. 하루의
끝에 서서 밑줄 그은 한 대목을 옮긴다. 오늘의 헤매이 가치 있다고 여기게 해준, 그런 귀여운 문장이다.
“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 우리가 건강했다는 걸 기억하길. /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건강하길. / 귀
여운 걸 발견하게 되면 아 귀여워, 하고 그러길. / 그래, 아, 멀리 웃으면서. / 무언가를 쳐다보면서.”

MOVIE

부유하는 감정 그대로
〈멋진 하루〉, 2008



© <멋진 하루> 감독

“네가 나랑 있는 동안 행복한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말할 때
너 정말 행복해 보였어.”

영화를 보고 난 뒤 기운이 빠져 드러눕고 싶을 때가 있다. 대개 감정 물입이 잘되어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한껏 느끼게 하는 영화들이 그렇다. 주연이 울면 나도 울고, 조연이 웃으면 나도 웃고, 작품이 여운을 남기면 그 안에서 한참을 헤매고. 이렇게 흠뻑 빠져서 보고 나온 영화도 좋지만, 가끔은 마음이 힘들지 않은 편안한 영화를 찾게 된다. 모처럼 찾아온 여유에 함께하기 좋은 그런 영화들.

영화 〈멋진 하루〉의 중심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 그러나 가슴이 찢어질 법한 이별 장면이나 심장이 터질 듯한 설레는 장면도 없고, 약이 오를 듯한 알콩달콩한 서사도 없다. 〈멋진 하루〉의 얇은 리듬은 천천한 마음으로 지켜보기에 적당한 강도다. 그렇다고 줄거리가 심심한 것도 아니다. 연인 관계였던 남자를 만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돈 갚아.”이니 과연 심심해질 틈이나 있을까. 병운과 희수는 헤어진 연인 사이다. 1년 전 희수에게 350만 원을 빌리고는 잠적한 병운. 병운이 자주 가는 경마장 구석구석을 뒤져 그를 찾아낸 희수는 병운이 쓴 차용증을 꺼내 보이며 당장 돈 갚을 것을 요구한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병운은 그때부터 아는 여자들을 찾아다니며 조금씩 돈을 모아 희수에게 야금야금 갚기 시작한다. 그가 한 푼 두 푼 모으는 여정을 함께하게 된 희수는 병운의 여자관계를 연달아 목도하고, 35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 그 모습을 참고 지켜보며 하루를 함께한다. 1년 전에는 연인 관계이던 둘의 관계가 어쩌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되어버린 걸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은 화려한 위기 상황이나 극적 반전 같은 게 없어 잔잔한 마음으로 보기에 편하다. 불편한 감정이 들지 않아 굳이 집중해서 보지 않고 들어만 두어도 좋다. 몰입해서 봐도 좋지만 몰입해서 보지 않아도 좋은 영화라는 의미다. 러닝 타임 동안 복잡한 마음과 멀찍이 거리를 두고, 희수와 병운의 작은 감정을 헤아리다 보면 사위에 여유가 깃드는 건 시간문제. ‘멋진 하루’라는 타이틀이 성큼 다가온 듯하다.

MUSIC

외롭고도 사랑스럽게
‘그게 다 외로워서래’, 김목인, 2013



“그게 다 외로워서래 그가 집에 간다 하고 또 다른 데 간 것도 이 시간까지 남아 귀를 기울이는 것도
그게 다 외로워서래 모두가 끄덕끄덕…… 아 사랑스러운 사람들 외로워서 사랑스러운 사람들”

가끔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다.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싱숭생숭하다. 다 커서 사춘기라도 온 걸까. 그럴 때 텅 빈 마음을 채우려 발길을 이리로, 저리로 움직이곤 하는데 아무리 떠돌고 움직여봐도 통 이유를 모르겠다. 그때 이어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문득 귓가에 꽃힌다. “그게 다 외로워서래.”

외로움의 종류도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이 부재로 생겨나는 건지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가족이 멀리에 있어 서일 수도 있고, 친구가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애인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 혹은 너무 많아서 그 안에서 진정한 내 사람을 찾지 못해서일 수도 있고 사람 때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때 책을 읽듯 한 자 한 자 조금조곤 얽는 그의 목소리가 다시금 들려온다. “그 외로움이란 건 말야 여자친구와도 무관한 것 술을 마셔 봐도 춤을 추어 봐도 블루스여라도 사로잡혔나? 남자들은 자신들이 외로워서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저기 저렇게 모여 길길대며 좋아죽겠다”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를 한 자 한 자 곱씹어 듣고 나니 이 외로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이유를 몰라 방황했는데, 곰곰 생각하면 방향이 정확한 외로움이 어디에 있나 싶고, 가끔은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이유 없이 기쁠 때도 있는 거지. 기쁨과 행복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데 왜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면 이유를 찾기 위해 골몰하는 걸까. 가끔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느껴주는 게 좋을 때도 있다. 김목인의 ‘그게 다 외로워서래’를 흥얼거리며 외로움도 이럴 땐 친구처럼 느껴진다며 살짝 웃음 지어본다. 방향을 모른 채 어쨌든 함께 걷는 친구. 이걸로 든든하니 이대로도 좋구나.

화성인의 방향

새로운 해가 떴다. 올 한 해는 또 어떤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은 설레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마음은 확실하다. 정말 하고 싶었지만 미뤘었던 것, 두려움에 못 이겨 도전하지 못했던 것... 이번엔 꼭 해내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에디터 김채은

새해를 맞아,
새롭게 다짐한 약속은 무엇인가요?

이다순 | 주부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기

마흔 살 생일을 맞았을 때 '인생의 절반을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지금은 그때부터 20년이 흘러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고, 왜 이리 사소하게 아픈 곳이 많은지 모르겠다. 크게 고생하며 힘들게 산 것도 아니건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단골이 된 지는 오래고, 쓸데없는 혹이 생겨서 수술도 했고, 대상포진에도 걸려보았다. 며칠 전엔 가슴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기에 검사를 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아프다. 그냥 아프다. 코로나가 시작된 작년 1월에는 친정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10년 동안 치매를 앓으셨고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시다가 결국 폐렴으로 돌아가셨다. 응급실이나 병실에서 고통받는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늘 들던 생각 중 하나는 '난 나중에 안 그래야 되는데... 내가 많이 아파서 나중에 자식들을 힘들게 하면 어쩌나?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 건강에 신경 써야겠구나.'다. 올 한 해 뼈저리게 느끼면서 새해에는 다른 무엇보다 내 건강을 위해 조금 더 젊은 지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다짐해 본다.

조연주 | 창작 진로 강사 만남을 기록하기

코로나19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안감에 일상이 멈추기도 했다. 지난 1년 동안은 코로나, 그 이전에는 육아하느라 바쁜 일상을 보냈다.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로 늘 소중한 이들과의 만남을 뒤로 미뤘다. 2021년은 만날 수 있을 때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사진과 글로 남기며 꼭 SNS 계정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소통하면서 살자고 다짐했다. 서로 토닥토닥하며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

양소연 | 학생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새해를 맞아, 나는 나에게 좀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다짐했다. 인간관계에서 사소한 것에 스트레스받지 않고, 남을 배려하려고 나한테 상처 주거나 지나치게 희생하지 않으며 나를 좀더 사랑해 주는 내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생활 습관 면에서도 체력과 건강을 위해 충분히 자고, 건강한 음식 챙겨 먹고, 일주일에 세 번씩이라도 운동을 하려고 한다. 요즘 상황은 우울하지만, 그 덕분에 여유가 생기고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진 듯하다. 무슨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정신건강에 해롭지 않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지내기로 다짐했다.

조용우 | 학생 나하고 한 가지 약속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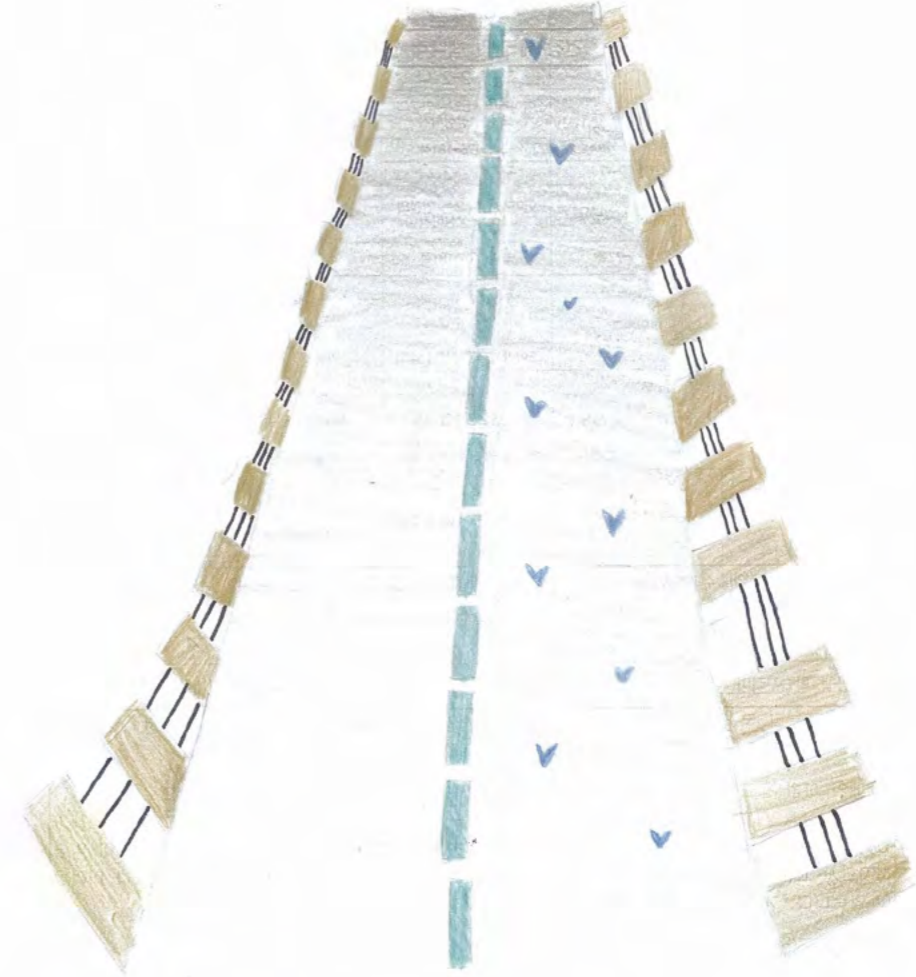
난 대한민국의 아주 평범한 고등학생이다. 진로는 오래전에 결정하고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아직 없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며 나 자신과 다짐한 약속은 '진로를 향한 실질적 결과 가져오기'다. 예를 들어 학교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 가져오기, 전국 모의고사에서 좋은 점수 가져오기 같은 목표 말이다. 꼭 이런 성적과 관련한 것이 아닐지라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결과만 있으면 나의 진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새해에는 나와 약속을 꼭 지켜, 내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싶다.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길을 말해주세요.



김동혁 | 학생
엄마와 함께 걷는 길

어느 곳이든 엄마와 함께 걷는 길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길이다. 엄마와 함께 길을 걸으며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에 대해, 길가에 새롭게 피는 예쁜 꽃들에 대해 이야기한다. 파란 하늘에 날아가는 반가운 새들과 길가에서 햇볕을 쬐며 낮잠 자는 고양이와도 인사한다. 처음 가는 길이라도 엄마와 함께라면 내가 늘 좋아하던 길처럼 편안하고 기분이 좋다.



조미선 | 학생
꿈을 향한 길

남들보다 뛰어난 것 없이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많은 사건을 겪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겪으며 살아갈 예정이다. 나는 꾸준히 한 발자국씩 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좋아한다.

화성시문화재단 1·2월 문화소식



글 차영은(기획홍보팀) 사진 화성시문화재단

시민의 눈으로 보는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영상
 서포터즈 제작 영상 공개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은 재단 영상 서포터즈가 제작한 영상 다섯 편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재단은 2017년부터 화성 시민이 직접 화성시와 재단 홍보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고자 서포터즈를 운영해 왔다. 그리고 올해는 문화 콘텐츠 트렌드에 맞춰 영상 서포터즈를 모집했다. 선발된 다섯 팀은 영상 제작을 위한 재단의 교육과 함께 기획과 제작 과정을 거치며 역량을 강화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영상은 각종 이벤트와 함께 재단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어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영상은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화성시 스탬프 투어로 즐기는 화성시문화재 탐방!
 스탬프 투어와 함께 화성의 문화재를 만날 수 있는 영상



영화 <블루토> 예고편(12월 대개봉)
 영화 예고편 같은 유니크한 콘셉트 영상



걷기 좋은 날, 만세길에서 만나
 만세길을 감성적인 사진과 영상으로 잘 담아낸 영상



BTS-DYNAMITE 댄스커버 in 화성
 한림예고 학생들의 상큼한 춤과 함께 펼쳐지는 화성시 명소들을 담은 영상



화성인간극장 1부작 : 어느 화성시 음악인의 일상
 화성시 M.I.H 프로젝트 예술단 단원의 진솔하면서도 재미있는 일상을 소개한 영상



화성시문화재단 영상 서포터즈 보기 가기

장르와 표현의 한계를 넘는 신선한 공연
M.I.H Collaboration Stage : THE ONE



화성시 M.I.H(Made In Hwaseong) 프로젝트 예술단(이하 '예술단')의 마지막 무대가 지난 11월, 반석아트홀에서 펼쳐졌다. 사전 예약한 소수의 관객만 관람한 이 공연은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되어 온라인 관객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예술단은 화성시와 재단이 코로나19로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모집했고, 4개월간 운영한 결과를 담은 공연을 선보였다. 예술단은 관현악단, 합창단, 스트릿댄스팀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팀의 젊은 예술가들은 활동 기간 동안 장르를 넘나드는 콜라베이션 공연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다. 예술단은 이번 무대에서 가수 안예은의 '상사화'를 바이올린 선율과 몸짓으로, 전 세계를 열광시킨 BTS의 'Dynamite'를 클라리넷과 경쾌한 댄스로 표현하는 등 장르 해석과 표현의 한계를 넘은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번 공연은 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예술단운영팀 031 290 4607

화성시립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 연말 특집
작가와 함께하는 LIVE TALK



화성시립도서관 팟캐스트 '북새통: 책으로 새롭게 소통하다(이하 '북새통')'가 연말 특집으로 특별한 작가들을 초대해 만남을 가졌다. 지난가을 시작한 북새통은 사서와 시민이 패널로 출연해 책을 읽고 책과 삶, 일상의 고민을 이야기하는 오디오 방송이다. 북새통은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독서 모임 플랫폼으로 기획되었다. 북새통은 지난 시즌1에서 '라이트 북스Light Books: 가볍지만 빛나는 나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공감과 위로를 주는 국내 젊은 작가들의 단편 소설집을 소개하였다. 또 이번 연말 특집 '작가와 함께하는 LIVE TALK'에는 게스트로 소설가 심너울과 시인 박소란이 함께하였다. 심너울 작가는 신선하고 유머러스한 내용으로 인기를 얻은 SF 단편 소설집 《나는 절대 저렇게 추하게 늙지 말아야지》를, 박소란 작가는 2020년 화성시 노작문학상을 수상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호평받은 시집 《한 사람의 달힌 문》을 펴냈다. 두 작가의 위트 있는 대화는 화성시립도서관 유튜브 채널, 네이버 오디오클럽, 팟빵 북새통 채널에서 들을 수 있다. 북새통은 다가올 새해에 새로운 내용으로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031 378 7344

화성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성시 온라인 콘텐츠
똑딱똑딱 미디어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시미디어센터는 화성시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달하는 '똑딱똑딱 미디어'를 선보였다. 똑딱똑딱 미디어는 코로나19로 활동이 어려운 동아리, 문화예술인의 공연 모습 등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했다. 그중 주목할 만한 영상은 코로나19로 달라진 화성 시민의 일상을 모은 시민 이야기 프로젝트다. 총 20가지 시민들의 이야기를 선정해 프로젝트 1, 2탄으로 영상을 제작하였다. 다음으로 주목할 영상은 미디어센터 강사들과 협업해 미디어 정보를 제공한 영상이다. 강사들은 기존의 교육 영상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다. 반려견을 주제로 한 영상 촬영 기술, 영화 속 효과음인 폴리 사운드 체험, 더빙, 출사를 통한 사진 촬영법 등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미디어 정보를 볼 수 있다. '똑딱똑딱 미디어'는 화성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마스TV'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미디어팀 031 8003 6469, 031 8015 2735

시민이 제작한 영상과 함께한 온라인 영상제
내찍내알(내가 찍고 내가 알린다)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화성시미디어센터 영상 스튜디오에서는 특별한 영상제가 열렸다. '편Fun편한' 온라인 콘텐츠 영상제 '내찍내알'이다. 내찍내알은 시민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공모 받아,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진행되었다. 콘텐츠 모집은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이야기', '우리 가족', '화성시를 브랜딩 하다'의 주제로 두 시즌에 나누어 이루어졌다. 출품작은 시민과 전문가 심사를 거쳤으며 총 55편의 콘텐츠가 선정되었다. 1시간 남짓 진행된 영상제는 선정작을 실시간으로 상영했고, 작품 관람 중에 온라인 채팅으로 자유롭게 작품평을 나누었다. 상영작 대부분이 제작자의 일상을 소재로 제작된 만큼, 영상제는 영상 제작자들의 긴장된 반응과 관객의 공감과 따스한 호응으로 현장감있게 진행되었다. 선정작은 화성시미디어센터 유튜브 채널 '마스TV'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미디어팀 031 8003 6462

하나뿐인 핸드메이드 제품
화성시 생활시장화인, K-핸드메이드페어 2020 참가



화성시문화재단은 생활문화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온·오프라인으로 소개하는 마케팅 문화 행사 '생활시장화인(이하 '화인')'을 운영하며 화성시 예술 공방 운영자들과 동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획일화된 대량 생산품보다 정성이 들어간 핸드메이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에 손으로 만드는 브랜드들이 모이는 핸드메이드 축제의 장 <K-핸드메이드페어>에 화인도 참여했다. 페어에는 화성시 예술 공방인 신자연주의 공방, 아토도예, 공예문화진흥원 모꼬지 협동조합, 그랑델, 솔터 공방, 스리플렛, 은기비글라스 작업실, 이금주 니트아카데미, 이와 상공작소, 핸드메이드 핑쿠베베가 참여했다. 화인의 공방들은 각자의 매력이 묻어나는 제품들로 페어에서도 눈길을 끌었다. 참여 공방들의 핸드메이드 제품들은 화인 온라인 직거래 마켓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생활문화팀 031 8059 1766
생활시장화인 화성시생활시장화인.kr

화성시 7인의 작가와 함께한 전시
2020 Urban Break ART ASIA



화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 관내 작가들과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 페어 <2020 Urban Break ART ASIA(이하 '페어')>에 참가했다. 페어는 도시문화와 함께 성장한 미술, 어반 아트의 다양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사다. 페어에는 2020년 아트 페어 참여 예술인 통합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고은주, 김현진, 박지혜, 석동미, 이나라, 이부강, 이항지 작가가 함께했다. 전시는 '동화의 성'을 큰 주제로 하며 그 안에도 '피어나는 꽃의 미로 방', '혼자하는 숲바꼭질 방', '따뜻한 공감의 방', '알록달록 꿈의 방', '고요한 숲의 방', '질은 추억의 방', '달콤한 풍경의 방'의 작은 주제들을 두어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구성되었다. 재단은 화성시와 관내 작가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지원 사업과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3

2020 화성예술플랫폼 아카이브展
화성, 유레카!



지난 11월 동탄북함문화센터 내 아트스페이스에서 <2020 화성예술플랫폼 아카이브展>이 진행되었다. 화성예술플랫폼은 시민들이 화성시 곳곳에 자리 잡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콘텐츠 사업이다. 올해 화성예술플랫폼에서는 시각예술 작가 만옥, 이항지, 김미자, 박미원, NAKK(낙), 조현익, 김두한, 백영철과 공연 단체 두들리안 타악기 앙상블, 아트컴퍼니 달문을 소개했다. 시민들은 각 예술가의 작업실이나 독립서점 모모책방, 해BARAGI 갤러리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각 예술가의 창작 과정을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들의 만남을 기록하는 이번 전시는 지역 예술가와 시민이 함께한 작품을 소개했으며, 화성예술플랫폼의 현장은 추후에 화성시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4

설렘과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는 전시
동탄아트스페이스 신진작가 공모전 4orce



화성시문화재단은 신진 작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3년 만에 동탄아트스페이스에서 신진작가 공모전 <4orce>를 진행했다. 전시명 '4orce(포스)'는 강력한 기운이나 인상이라는 뜻으로, 신진 작가들의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공모작은 주제의 다양성과 표현의 창의성을 기준으로 심사했으며, 전시에는 김연, 나광호, 소수빈, 윤경주 작가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이번 전시는 관객이 무언가를 시작했던 순간, 어색하고 서툴렀던 지난 시절, 하고 싶은 일과 꿈이 많았던 시기를 상기한다. 간질간질하고 기분 좋은 기억을 되짚어 코로나로 축 처진 사람들에게 하나의 설렘을 전하려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다.

문의 시민문화팀 031 290 4637

화성시문화재단이 전하는 이야기

다사다난했던 해가 가고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는 모든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며 화성시문화재단도 화성 시민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은 물론 문화예술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난해 화성시문화재단은 위기 속에서 시민의 문화적 갈증을 해소해 줄 언택트 미디어 콘텐츠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즐길 수 있는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활동을 마련해 왔습니다. 올 한 해, 거리 두기를 지속하는 시기와 코로나 종식 후에도 뉴노멀 콘텐츠가 된 '찾아가는 공연장', <더 에이치 콘서트>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 2021년에는 문화예술 전문 기관으로서, 전문성을 가진 지역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차별화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또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예술인에게 연습 및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공연·전시 등의 행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다시 한번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화성인이 전하는 이야기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기자집으로 신청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오랜 시간과 함께하는 연말
데이트.
연말에 무엇을 할까 고민이었는데 2인
분이 좋았습니다.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 <화분>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난 연말에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나요? 이번 호에도 화성시의 매력적인 공간과 이야기를 한껏 소개해 드릴게요.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행정복지센터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매우 좋다 좋다 보통
 좋지 않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취창업 연계는 중심은 관심 영역이 아닌 실 위의
영역으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사업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준비해 두고
편안하게 업무가 코로나로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올해 연말까지 많은 기간이지만 연말
방역 계획은 신중히 주시면 합니다.

▶ 문화예술계는 연말까지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공연장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공연 진행 여부가 달라진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유동적인 일정으로 <화분>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공연 소식은 화성시문화재단 아트홀 홈페이지 art.hcf.or.kr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문의 031 8015 8112

화성시문화재단 운영시설

- 동탄복합문화센터
- 화성시미디어센터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
- 만세길방문자센터
- 화성아트홀
- 반석아트홀
- 누림아트홀

도서관

- 남양도서관
-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 동탄목동이음터도서관
-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 등지나래어린이도서관
- 봉담도서관
- 병점도서관
- 삼괴도서관
- 승산도서관
- 송린이음터도서관
- 정남도서관
- 진안도서관
- 태안도서관

작은 도서관

- 샘내작은도서관
- 기아행복마루도서관
- 비봉작은도서관
- 마도작은도서관
- 팔탄작은도서관
- 양감작은도서관
- 호수나래작은도서관

문화시설

- 노작홍사용문학관
- 로알앤컴퍼니 아울렛
- 모두누림센터
-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 소다미술관
- 엄미술관
- 유앤아이센터
-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카페

- 다락
- 다원
- 달팽이그림책카페
- 손커피연구소
- 차마시는플
- 카페 그루비
- 카페 쉬시오
- 에데니코 커피 로스터스

호텔

- 라비돌리조트
- 푸르미르호텔

기타

- 독립서점 모모책방

온라인 구독

웹진 《화분》 hwaboon.hcf.or.kr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무가지입니다.
 배포처 방문 또는 온라인 구독 부탁드립니다.

FOLLOW US



화성시문화재단 SNS채널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을 통해 다양한 화성시 문화소식을 만나보세요! 각 SNS검색창에 '화성시문화재단' 혹은 'hcfart'를 검색하시면, 화성시문화재단 공식 SNS 계정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화분》 49호를 만든 사람들



차영은

여전히 불확실한 날들이 이어지며 한 해가 시작되었네요.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차유나

코로나로 언택트 트렌드가 더욱 활성화된 만큼 화성시문화재단에서도 《화분》뿐만 아니라 SNS 계정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정보를 제공하는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언택트 시대, 예술과 시민과 콘택트 하는 화성시문화재단을 기대해 주세요.

김채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이번 년을 맞이하며 다짐한 저와의 약속이에요.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켜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열심히 해내려고 해요. 파이팅 2021!

하나

한 해 동안 《화분》을 편집하며 즐거웠어요. 앞으로의 화성시문화재단과 《화분》이 나아가는 길을 지켜보며 응원할게요.

이다은

이번 인터뷰에서 만난 두 사람 덕분에 직업의 의미를 새삼스레 생각해 보았어요. 하고 싶은 일이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싶어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 좋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들이 걸어온 길 위에 잠시 함께 서 보니, 제 앞으로 난 길을 더 자주, 멀리 내다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주연

정신없이 거리를 쏘다니는 남자가 보여요. 그의 이름은 '이상'이죠. 퍼뜩 정신이 든 그는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대체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다'는군요. 바야흐로 2021년이네요.

김지수

방향, 또는 어떤 길을 상상하며 이번 인터뷰를 준비했어요. 혼란스러웠던 요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어쩐지 '변화'라는 단어가 주저보다 앞서 떠오르기도 했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틀고 길을 바꿔 걷는 시기에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평범한 일상을 위해서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걷는 일 역시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연락처 _____

※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21.1.1-2021.12.31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동탄북합문화센터 3층
경영기획국 기획홍보팀 《화분》 담당자

동탄센트럴파크

이곳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사업 (HUG AND PEACE)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지난가을부터 40여 명의 화성시민이 직접 드래질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문화매거진 《화분》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곁사에 적어서 보내주시 내용은 다 좋은 《화분》을 만드는 소중한 자료가 사용하겠습니다. 단편을 보내주시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2. 이번 호 콘텐츠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3.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하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4.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또는 《화분》 편집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VOL.49 | WAY
2021 JANUARY & FEBRUARY
문화를 담은 빛나는 그릇

발행처	(재)화성시문화재단
편집국장	서관석
편집팀장	정희봉
기획·편집	차영은, (주)어라운드
디자인·인쇄	(주)어라운드
홈페이지	hcf.or.kr
주소	18459 경기도 화성시 노적로 134
전화	031 8015 8112
팩스	031 8015 8129

《화분》은 화성시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원고는 화성시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본지에 수록된 일부 내용은 화성시문화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지인 그린라이프지를 사용합니다.



04
PIECE
화성의 한 조각

10
INTERVIEW
DJ SEFO, 싱어송라이터 미지니

34
FEATURE
색깔을 찾는 문화 데이터

58
PEOPLE
화성인의 방향